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기억을 통한 사물의 재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 프린트 전공

박 선 미

# 기억을 통한 사물의 재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 프린트 전공

박 선 미

# 인 준 서

박선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2004년도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물을 통한 내적 감수성을 기억과 연관해서 연구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상실감이나 기쁨, 슬픔 또는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한다. 그것은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축적된 시간에 의해 기억으로 남게 되며 이러한 일상의 파편들은 가까운 주변사물들에 투영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데서 출발 한다.

사물은 본래 정적이며 고요한 속성을 지닌다. 또한 각각의 고유한 형태와 색을 갖고 있다. 그러한 사물들에게서 본인은 이미 지나갔거나 일시적으로 잊혀진 기억들이 다시 존재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대개 명확하지 않으며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한 이미지로 남을 경우가 많다. 삶의 형태는 다양한 듯 보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슬픔이나 기쁨 등의 고유한 감정은 대개가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사물의 재현도 사물과 나와 의 관계로서 가능하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 '내'가 경험한 기억 속의 다양한 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이미지에서 느끼는 삶의 흔적은 본인에게 있어서 사물의 보이는 면과 그 이면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본인은 정적인 사물의 고유한 모습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서의 사물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익숙하지만 낯선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형적으로는 객관적 형태와 자아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화면구성을 추구 한다. 주가 되는 사물과 배경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의도를 위한 판화의 기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표현방법을 위해 본인의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작품사진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 **Study on reproducing objects through memory**

**Park, Sun MI  
Major in Media Print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objects related to memory based on my works created the year of 2004.

As human beings, we all share feelings of loss, joy, sadness and fear in our everyday lives. Eventually, as time passes and situations change, these feelings help form our memories and certain objects conjure up the emotions felt at the time. My work started with the desire to materialize and reproduce images of these feelings.

By nature, objects are quiet and stationary. But each has their own shape and color, and they have the power to stir

memories of the past or of things once forgotten. However, most of those experiences are unclear—remaining imperfect or as fragmentary pieces of a whole. Everybody lives their life differently, but emotions such as happiness and sadness are experienced by all,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from and where they are going.

When I experience those feelings, they are no longer general, but personalized: they became mine. Likewise, reproducing objects that have special meaning to me is only possible in relation to me. In this sense, these efforts can be explained as an attempt to represent various feelings I have experienced through objects which exist in my everyday life.

I believe that tracing the life that I have lived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covering the features and feelings of the objects that stir my memory. I wanted to depict these objects as ever-changing, rather than tranquil and stationary. In other words, I intended to utilize objects to reproduce images that are both familiar and strange at the same time.

As for shape, concept and abstraction coexist on the screen to show the shapes of objects and my emotions. I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objects and background, and the methods of etching I used. I also analyze detailed ways of expression through my work and add pictures to the paper.

## 목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대상으로서의 사물	4
2. 기억을 통한 형상의 재해석	7
3. 판화의 특성을 이용한 기억의 형상화	11
4. 작품설명	15
III. 결론	32

### 참고문헌

ABSTRACT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2004년도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물을 통한 내적 감수성을 기억과 연관해서 연구 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상실감이나 기쁨, 슬픔 또는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공유한다. 그것은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축적된 시간에 의해 기억으로 남게 되며 이러한 일상의 파편들은 가까운 주변사물들에 투영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데서 출발 한다.

사물은 본래 정적이며 고요한 속성을 지닌다. 또한 각각의 고유한 형태와 색을 갖고 있다. 그러한 사물들에게서 본인은 이미 지나갔거나 일시적으로 잊혀진 기억들이 다시 존재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은 대개 명확하지 않으며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한 이미지로 남을 경우가 많다. 삶의 형태는 다양한 듯 보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슬픔이나 기쁨 등의 고유한 감정은 대개가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이 아닌 나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사물의 재현도 사물과 나와 의 관계로서 가능하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물을 통해 '내'가 경험한 기억 속의 다양한 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이미지에서 느끼는 삶의 흔적은 본인에게 있어서 사물의 보이는 면과 그 이면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본인은 정적인 사물의 고유한 모습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서의 사물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익숙하지만 낯선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형적으로는 객관적 형태와 자아의 내적 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화면구성을 추구 한다. 주가 되는 사물과 배경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의도를 위한 판화의 기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표현방법을 위해 본인의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작품사진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삶과 동시대의 다양한 가치척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간 삶의 여러 측면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동시대의 사상이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인 예술작품도 끊임없이 그 의미가 변화해 왔으며 예술의 창조적 가치는 낭만주의 이래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되어 오늘날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술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 저서 그것을 구획할 마땅한 기준을 찾기조차도 불가능해 졌다. 예술의 창조적 의미도 퇴색되어 단지 작가의 손이나 생각을 거쳐 탄생되는 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급속한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영상미디어 기술은 예술의 2.3차적 공간의 전통적 정의를 확장하였으며, 작품의 전시 공간 또한 관객이 참여하는 능동적 개념으로 변모했다.

감상을 해야 하는 대중들도 이러한 다양성의 홍수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권리를 찾는 반면에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현실과 가상의 혼돈을 야기 시킬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물질적 가치가 중요시되며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미술 또한 이러한 세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많은 작품들이 등장했으며 이 또한 앞서 말한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척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이러한 다양성의 홍수 속에서도 예술은 결국 작가의 눈을 통해서 재창조 되며 그것은 또한 대중의 눈에 의해 보여 진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삶의 가치기준이 달라진다고 해도 인간의 삶은 영원할 수 없다. 그 한정된 삶 속에서 예술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스스로가 인식하고 의도한 것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개개인은 세상을 향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각자의 다른 세계관은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낳게 한다.

예술은 이러한 복잡한 변화 속에서도 본인이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에 의해 형성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한 삶과 상상이나 관조에 의한 이중적 삶을 산다. 주변을 채우는 의자나 책상, 그릇, 키우던 나무 등에서 과거의 한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물 그 자체 보다는 삶의 이면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기억을 내재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 이미지를 찾고자 노력해왔다. 사물자체가 갖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기억에 의한 내적 감수성의 표현으로 대치하려는 것이다.

1 장에서는 작품의 대상으로서의 일상적인 사물이 갖는 의미를 개인의 의식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그 외형적 특징이 화면 안에서 보여주는 구상적 이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조형적 측면으로서 다루어 온 이중의 그늘을 설명하며 사물과 배경이 되는 그림자의 혼용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작품 안에서 사물은 개인의 의식을 보여 주는 대상으로 표현되며 이로 인한 추상적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동판화의 기법적인 측면을 설명하며 선과 면을 위한 세부적 표현기법도 아울러 서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이 추구하는 의도와 결과물인 작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인은 일상적 사물을 통해서 개인의 감성에 기초한 기억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이 갖는 다양한 양상들을 개인적 경험과 인식으로 재해석하고 이러한 과정과 분석은 인간성에 관한 근원적 물음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본인은 보다 폭넓은 작업의 과정으로서 새롭게 임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대상으로서의 사물

대개의 사물은 그것이 소유됨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기억될 만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더욱 강렬하거나 애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게 된다. 그것이 대부분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물에 얽힌 갖가지 기억에 의해 개인에게는 또 다른 의식속의 사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사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사물의 사물성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해석을 내린다. 그것은 첫째 ‘특징의 담지자이고, 둘째 감각되어진 것 즉, ‘감각 속에 주어진 것의 다양성의 통일’이고 셋째 형성된 소재이다.

그러나 처음의 생각이 사물을 우리의 신체에서 너무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의 생각은 사물을 신체에 너무 가까이하여 추상개념을 소멸시키고 만다.

세 번째의 생각 역시 미학의 이론상 사용된 하나의 구분이고 가정이어서 형식과 소재의 결합 기준이 모호하다. 이 세 가지 정의가 다 존재론을 존재물로서 있게 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sup>1)</sup>

본인이 추구하는 대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

1)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p.287.

그러나 단순히 사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이나 상실감 혹은 삶의 무력감등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러한 감정들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개인이 지나온 경험과 시간에 의해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 표현 대상으로서 가까운 사물을 선택하였다.

순수하게 새로운 하나의 관념, 최초로 우리가 유의한 하나의 사물은 어떤 명칭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념이나 사물을 표현할 언어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최초로 지적되거나 유의될 수 있을까? 그러한 개념을 표현하는 정상적 방법은 그 사물을 자연스럽게 상징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상징적 명칭으로 새로운 개념을 의미하게끔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한 보기가 (정신spirit), (유령ghost), (아니마 anima)같은 인격 혹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생명의 개념들에 대한 원시적 표현들 속에 읽힐 수 있다. 이 낱말들은 지각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호흡breath), (그림자shadow), 혹은 다른 육체적 현상을 원초적으로 지시한다. 이들의 비구체성(intangibility)은 이 낱말들을 실제로 지각이 불가능하고 비육체적인 존재 개념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징이 되게 한다. 2)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상징에 의한 비유로 표현될 수 있다. 삶의 과정은 대부분 고단하며 이것은 사물에 의해 비유되기도 하고 예술 작

---

2)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2, p.90

품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직접적인 표현 방식을 보여 준다.

모든 사물은 언젠가는 소멸하며, 따라서 그것의 흔적은 사물의 존재가 있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물의 본질이 그 형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인식하는 사물은 나의 의식이 그것을 구성했기 때문이며 의식 속에서 구성된 사물은 나를 초월해서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은 의식 속에서 내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항상 같은 사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물이 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초월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대상(사물)은 내부와 외부의 구별을 넘어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라캉은 무의식을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다른 요구를 갖고 있는 어떤 것 즉, 의도를 지닌(지향적인)것으로 정의했다.

본인이 다루는 사물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물로 대치되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라캉이 지향한 대상-즉 욕망의 대상-원인 (object-cause du desir)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이 갖는 외형적 특징은 제각각 다르며 이는 화면 안에서 우리의 시각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킨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본인의 작품 안에서 구상적 요소로 나타나며 사물의 내재적 의미를 인식시키기 이전의 순간을 보여준다.

사물은 친숙한 대상이지만 본인의 의식세계에 바탕을 둔 작품으로

대치될 때는 단순히 보여 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성이라는 사물의 이면을 보여 줄 수 있다.

본인은 이를 위해서 사물의 고유한 형상 보다는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어둠이나 깊게 패인 흔적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장치로서의 이중그늘(double-shade)로 설명하고자 한다.

## 2. 기억을 통한 형상의 재해석

본인의 작품은 사물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여 내면의 정서를 표현한다. 시각적으로는 명료하지 않은 사물이 공간을 지배한다. 대상과 배경의 관계는 본인이 추구하는 기억에 근거하여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자아의식이 어떠한 계기로 발생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자아의식의 출현을 위해서는 시간의식을 축으로 하여 지나간 경험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자의적인 미래 행위에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정체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러한 지적 활동의 내적 의식을 칭한다고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은 인간의 시간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시간에 대한 의식적 파악은 틀림없이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sup>3)</sup>

---

3) 우리사상연구소, [우리말 철학사전2], 지식산업사, 2002 p.164

본인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오랜 기간 함께 지내온 대상에게서 보여 지는 지나간 기억을 꺼내어 작업을 한다. 오래된 기억은 아무리 강렬한 것일지라도 시간과 함께 퇴색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나간 한 때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갖는 심리상태가 같을 수는 없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정체되어 있는 기억 속의 한 순간을 지목하여 시작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 형상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나와 관계에서 연유한 것일 뿐이고 그 이면의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내부의 의식세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느낌을 ‘무엇’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지각의 직접성과는 다른 층위의 인식이다. 우리가 형상에서 어떤 정서를 느낄 때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있다라고 느낄 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을 느낀다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괄호 쳐진 ....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과정을 통해 모호함이 주는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난다.<sup>4)</sup>

사물을 통해 느껴지는 처음의 정서는 기쁨이나 슬픔 또는 상실감과 같은 것으로 대치될 때 비로소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의 모호한 ‘나’만의 느낌으로 존재하던 것에서 사물을 좀 더 객관화시키며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

대개의 사물이 기능적 역할에서 소유물로서의 측면을 갖고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러한 사물은 단순한 외형적 의미를 넘어

---

4) R.G 콜링우드, [상상과 표현], 김혜련 역, 고려원,1996, p.135

소유자 개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태적 속성을 포함한 사물의 외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표방하고자 할 경우 그것은 그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했던 느낌을 스스로 상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 선, 색채, 소리 또는 단어 속에서 표현된 형식 등의 수단에 의해서 그러한 느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그것이 예술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온 벽이나 이중그늘은 주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사물의 형상을 보이며 표현된다.

화면을 강하게 지배하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은 흔들리거나 어색하게 어우러져 주체가 되는 사물을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물이 존재하는 현재와 지나온 시간을 통한 본인의 감성에 의한 시각적 환영을 보여주면서 앞서 설명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의식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일정한 간격을 가진 물결무늬의 깊은 선들은 형태의 원근법을 무시하고 무겁게 눌러진 압화(Pressed Flower)처럼 보이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기억과 함께 뭉뚱그려진 시간의 압축처럼 보이도록 한 결과이기도 하다.

희미한 빛 속에서 사물은 실재의 형상과 얼핏 닮아 있지만 그것의 실존을 보여 주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지의 무늬나 속이 비어 마른 껍질과 같은 형태로 재현하고자 했다.

무의식적으로 그어진 부정형의 날카로운 선들과 일정한 간격으로 깊이 팬 선들은 서로가 대치되는 듯 어우러져 있다. 이것은 완성된 화면위에 또 다시 작업이 더해진 효과를 주려고 한 것이다.

앙리 포시용에 의하면 손은 창조의 도구이기 전에 인식의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며 미술가는 그가 추구하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자유롭게 가져와 새롭게 시작한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은 다 만들어진 것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만들지 않는다. 미술가는 호기심을 어린 시절의 한계에서 벗어나 무게를 재고 공간을 측정하고 공기의 유동성을 부각시켜 미리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온갖 사물의 거죽을 쓰다듬는다. 그리고 그가 구성할 때 쓴 뜨거운 색조, 차가운 색조, 무거운 색조, 빈약한 색조, 딱딱한 선, 부드러운 선과 같은 시각(視覺)언어는 바로 촉각(觸覺)언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억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은 깊은 어둠과 거친 선으로 인해 앞서 말한 촉각을 느끼게 한다. 평면적인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에 의해 본인은 시간의 축적을 기록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 3. 판화의 특성을 이용한 기억의 형상화(形象化)

회화와 달리 판화는 재료와 기술의 숙련을 요하는 고된 작업이다. 또한 눌러 찍히는 특성 때문에 일정한 양의 잉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찍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의 작업은 사물을 근거로 하여 기억이라는 시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회화와 달리 찍어야 하는 판화 적 특성 때문에 판을 만들기 위한 제작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것은 평면회화를 완성하기 전에 경험하는 일종의 촉각적(觸覺的)이고 입체적(立體的)인 작업과정이다.

작업의 주가 되는 기법은 애퀴틴트(Aquatint), 소프트 그라운드 에칭(Soft Ground Etching)이며 거칠고 자유스러운 선의 표현을 위해 판면(版面)위에 두꺼운 송진을 입힌 다음 날카로운 니들로 긁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배경을 이루는 그림자나 깊은 어둠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애퀴틴트기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수차례에 걸쳐 선을 긋고 부식하는 과정은 흡사 회화에서의 그리는 과정과 닮아있다. 그 결과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져 부식된 어두운 면들은 실크스크린이나 석판화에서 볼 수 없는 무겁고 깊이 있는 질감을 얻게 한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흔적뿐인 기억을 재조합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을 일부 거치게 된다. 회화가 여러 번의 붓질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과정과 판의 제작과정도 닮아 있다고 본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품을 위한 판의 제작은 작품의 크기를 위한 판 자르기와 그리기 대신 행하는 부식의 과정 속에서 시간 속의 기억의 이미지를 담게 되는 것이다.

이중의 그늘(Double-Shade)이라는 다소 난해하고 심리적인 주제를 택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사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사물의 외형과 나의 정서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형상 자체와 이면의 의식체계로서의 추상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실재하는 대상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모자나 키우던 나무와 같은 사물이다.

우연한 기회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모자를 보았을 때 기억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오른다. 단순히 햇볕을 가리기 위한 모자에서 색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지는 순간인 것이다. 이는 모자에 대한 본인의 친숙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물로 대변되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모자는 깊이 새겨진 물결무늬로 인해 더욱 납작하게 눌러 보이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그늘은 그러한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림자는 사물과의 확실한 연관성을 갖지만 그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늘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어렴풋한 형태의 사물과 그로 인한 그림자가 아닌 외부적 그늘로 인해 사물은 시각적으로 더욱 위축된다.

이러한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벽지와 골판지를 이용한 소프트 그라운드 기법을 사용한다.

사물에 해당하는 모자는 골판지를 잘라서 깊게 부식을 시키며 그늘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이와 벽지를 이용해 얇고 우연적인 효과를 가미하여 부식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선으로 드로잉적인 요소를 더해 깊이 있는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큰 화면에 놓인 하나의 모자는 모자로서의 의미보다는 배경과 그림자로 인해 의도한 바를 적절히 수용하게 되었다.

소프트 그라운드로 찍히는 일정한 패턴의 문양은 벽지나 골판지를 이용한다. 이 작업과정에서 본인은 사물을 평면 화하고 단순화 하는 1차적 과정을 거친다. 눈으로만 의식하던 사물이 가위나 칼에 의해 잘림으로서 그 형태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화면위에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본인의 작업과정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된다고 본다. 그 다음 획일화된 외곽선의 일부분을 지우거나 덧그린다.

앞서 언급한 제작과정을 거친 후 잉킹(inking) 과정에서는 다소 많은 양의 잉크를 사용하여 세심하게 문질러서 찍어야 한다. 또한 날카로운 선과 애크티트의 섬세함 때문에 종이는 충분히 적셔진 상태라야만 한다.

동판이라는 금속성 소재가 무거운 프레스를 통과해 찍혀 나오는 관화의 특성과 결과물인 본인의 작품은 많이 닮아있다. 의도한 바 이기도 하지만 찍어내기 이전에 이미 본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숙지되었다고 본다.

일련의 긴 과정 속에서 본인은 여러 번의 사고체계의 정립을 경험한다. 또한 한 순간에 행해지는 자동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느린 작업방식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로써 큰 화면에 놓인 하나의 모자는 모자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배경과 그림자로 인해 의도한 바를 적절히 수용하게 되었다.

## 작 품 설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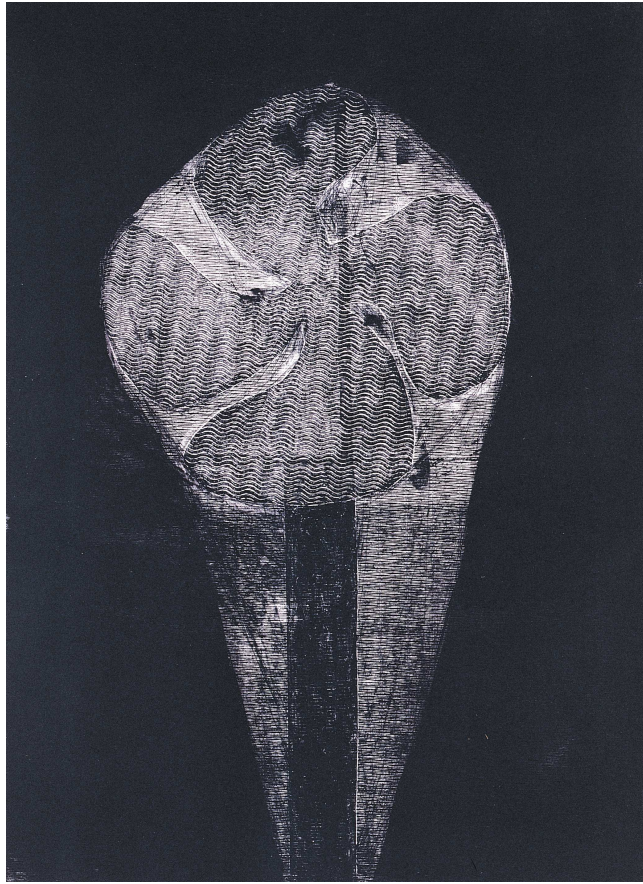
[작품1] Double Shade, 59×9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1] Double Shade

이 작품에서는 그간의 추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사물이 풍경처럼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물의 대상이 되는 모자는 본인이 늘 즐겨 쓰는 물건 중에 하나이다. 선반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던 모자를 보면서 그 모자를 쓰고 다녔던 장소나 사람들, 사건들을 떠올린다.

그간 다루어 온 사물의 형태와 '나'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시기의 작품은 상실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중으로 처진 그늘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 색깔이나 형태를 보여주기 어렵다. 사물은 감추어진 장막 속에 존재하듯 어렴풋하게나마 그 형상을 보여 줄 뿐이다.

모자는 화면의 중앙을 무겁게 차지하고 있다. 배경이 되는 공간은 깊은 어둠으로 표현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번의 부식을 하였다. 모자의 아래쪽은 모자 자체의 그림자라기보다는 본인의 상실감을 형상화한 것이다. 모자를 닮아 있으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표현에 주안점을 두었다.



[작품2] Double Shade, 59×9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2] Double Shade

우리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람을 통한 공기의 흐름이나 냄새 혹은 손에 의한 촉각을 느낄 수 있다.

더운 날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에서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바람개비를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는 바람개비를 만드는 것 자체도 놀이였지만 바람을 가르며 뛰어놀았던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이 작품은 그러한 추억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바람개비는 선풍기를 닮아있다.

이 작품 또한 화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제작하였다. 선풍기처럼 보이는 바람개비는 검은 배경에 갇혀서 새어나가지 않는 바람을 일으킨다. 그 위로 골판지의 검은 선들은 세월에 의해 낡은 유물과 같이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 전반에 보이는 검은 선과 얇고 가는 선은 지나온 시간들 속의 갖가지 상념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이제 바람개비를 갖고 놀지 않지만 바람개비는 튼튼한 지지대를 뚫고 달리고 싶어 한다.



[작품3] Double Shade, 59×90cm, etching · aquatin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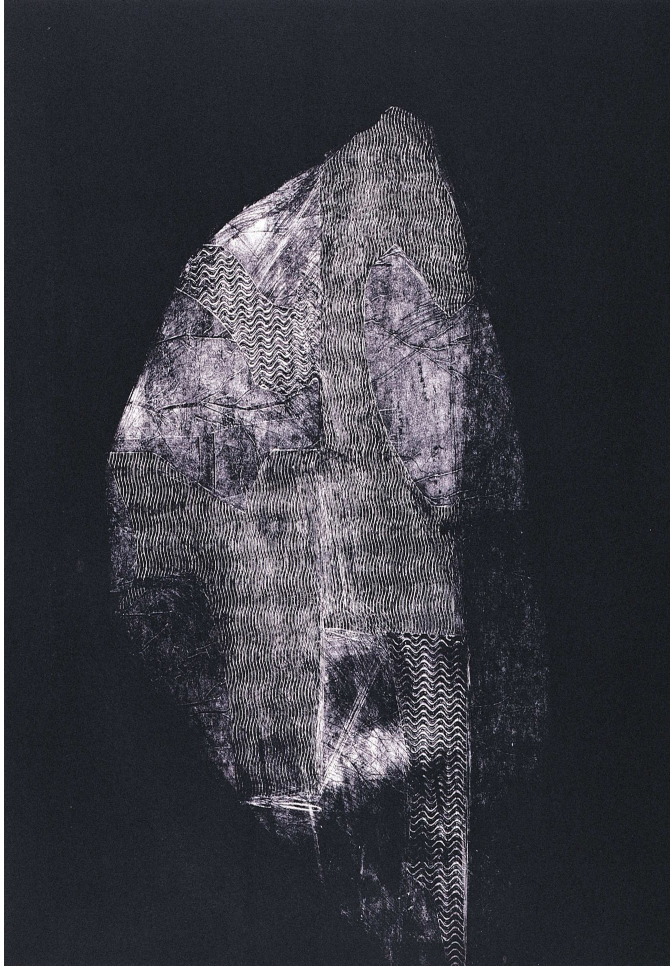
### [작품3] Double Shade

이 작품은 이 시기 이전 제작했던 Wall Flower에서 변형된 작품이다. 이 작품을 굳이 Double Shade Series에 속하게 한 것은 이전의 작품들보다 사물의 형태에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줄기나 잎이 없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자국과 같은 그림자로 보인다. 본인은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식물과 같은 가볍고 아름다운 사물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면 안에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꽃의 흔적은 그림자와 흡사하다. 배경은 이전의 작업에서 보이는 벽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완성 전 작품을 오려서 검은 종이에 오려붙인 것처럼 보이게 작업하였다.

하나의 가지에서 나온 식물의 꽃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면서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피하였다.

벽 위의 벽과 같은 착시를 의도한 작업이다.



[작품4] Double Shade, 59×9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4] Double Shade

근간의 작업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형태이다. 작업의 대상 또한 명확치 않다. 이 작품에서는 부식하기 전의 작업으로서 종이를 자르고 재배열되는 과정과 그라운드 위에 직접 그리는 다양한 선의 재미에 중점을 둔 것이다. 마치 collage를 하는 것처럼 판위에 배열하여 부식하였고, 시간의 차이로 인해 낡고 깊게 패인 선들은 거칠기도 하고 군데군데 가늘게 부식되면서 배경과의 경계를 설명해 준다.

주가 되는 형태는 배경에 반 썸 묻혀있다. 이 작품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담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쯤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작품5] Wall Flower, 59×9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5] Wall Flower

벽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개인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로 하지만 서로를 고립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 시기에는 벽과 사물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리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이러한 벽과 마주하며 생활한다. 본인은 처음에 이러한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Drawing을 시작했다. 그래서 화면은 매우 평면적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은 마치 식물 채집의 표본처럼 벽에 붙어있다. 식물성의 사물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버린 압화(pressed flower)처럼 표현 되었다. 사물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벽의 무늬나 그림자와 같은 흔적으로 남은 것이다.

배경은 실제 벽지를 이용해 동판에 부식하였으며 거친 선을 표현하기 위해 송진을 매우 두껍게 입혀 녹인 후에 선을 긋어 표현하였다.



[작품6] Wall Flower, 55×59cm, etching · aquatin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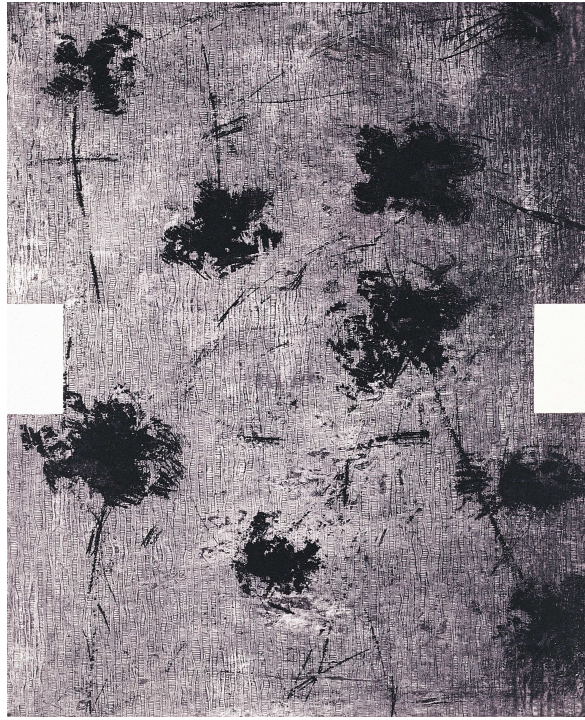
## [작품6] Wall Flower

이 작품은 주가 되는 꽃의 형상보다는 어두운 배경을 중심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문의 블라인드와 같은 깊은 줄무늬로 부식되어 있다. 배경은 어둡지만 회화적인 꽃의 형태로 인해 막혀 있는 벽으로 보이지 않는다.

(작품 5)에서 보이는 거친 선을 배제하고 꽃의 형상만을 보다 뚜렷이 보이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물이 벽 속에 혼재되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 보이면서 꽃의 이미지는 명확해지고 사물의 본질에 보다 근접해졌다.

배경의 어두운 면은 더 깊은 선의 부식으로 인하여 단조롭지 않은 어둠을 표현할 수 있었다.



[작품7] Wall Flower, 49.5×7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7] Wall Flower

동판화를 제작할 경우 대개가 일정한 틀 안에서 가능하다. 본인은 고정된 판의 형태를 탈피해 보고자 다양한 크기로 판을 잘라보지만 사각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배경이 되는 사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 좌우로 동일한 사각의 형태를 잘라내어 보았다. 이것만으로도 화면은 색다른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화면구성에서 오는 답답함을 일순간에 해소 해주었다. 변형된 테두리는 화면을 압도하고 그자체로서 이미 다른 작품처럼 보인다. 화면은 부분이 잘림으로서 벽에 붙은 포스터처럼 보이기도 한다. 벽을 그린 화면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작품8] Landscape, 20×30cm, etching · aquatint 2004

## [작품8] Landscape

풍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먼 곳에 두게 함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해지는 저녁 무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숲처럼 보이는 부분은 마른 식물을 이용하여 soft ground etching으로 부식하여 표현하였다.

숲은 완전한 어둠이 내리기 바로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반쯤 어둠에 잠긴 아랫부분은 얼핏 보이는 결로 인해 강에 비친 물그림자처럼 보인다.

나무와 나무 사이는 부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연한 얼룩을 상당부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의도하였다.

이전의 작품에서 다루던 사물의 내면적 정서의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 작품은 보다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의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Ⅲ. 결론

과거에 비해 오늘 날의 예술은 보다 더 확장된 영역으로 진보했다. 예술가들은 제작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자유로운 시도를 꾀한다. 동시대 회화에 있어서 형상을 통한 본인의 작품은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의식보다는 인간의 내적 감성에 중점을 둬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인간은 현실적 요구에 의한 삶과 관조의 삶을 함께 영위한다. 본인은 이러한 면에 기초하여 사물을 표현한다. 사물은 평범함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축적되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성을 표현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감성은 슬픔이나 상실감으로 표현된다. 기억이란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것이며 작가는 그러한 것을 상상이나 눈을 통해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에서 다룬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개인의 일상적 이미지와 닮아 있으며, 본인은 작품에서 보여 지는 구상적인 이미지로 구체화 하였다.

두 번째의 기억을 통한 형상의 재해석은 인간의 내재적 감성, 즉 기쁨이나 슬픔, 상실감등을 사물에 투영시킨 작업에 대해 서술 하였다. 이것은 기억을 통한 시간의 축적을 의미하며 사물의 낡고 명료하지 않은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물질로서의 사물이 비물질 화하는 과정으로서 화면은 구상과 추상이

어우러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판화의 특징과 작업과의 연관성을 서술하였으며 화면 속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선과 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표현되는가를 설명하였다.

인식의 측면인 이중의 그늘로서의 사물은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무겁게 눌러거나 깊이 패여 있는 선에 의해 구체화된다. 주로 화면 중앙에 위치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벽 꽃으로 지칭되는 사물들은 화면에 분산되어 있지만 배경의 어두움으로 인해 부각된다. 그러나 사물들은 낡고 무거운 압화(pressed flower)처럼 표현되면서 기억의 이미지와 함께 ‘나’의 감성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보이는 실체가 사물이라면 개인의 감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본인은 이러한 감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러한 관계를 보다 다양한 시점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라캉과 현대철학] 홍준기 문학과 지성사 2003
- [미학이론] T.W 아도르노, 홍승용역, 문학과 지성사 2000
- [우리말 철학사전] 우리사상연구소, 지식산업사 2002
- [예술과 인간가치] Melvin Rader, Bertram jessup 김광명 역  
이론과 실천, 1988
- [예술이 궁금하다] Magaret P.Battin , John Fisher, Ronald Moor  
Anita Silvers 현실과 문화연구 2004
- [예술이란 무엇인가] L.N.톨스토이 이철 역 범우사 2005
- [예술철학] 조요한, 미술문화 2003
- [현상학과 예술] M. Merleau Ponty 오병남 역 서광사 1987
- [형태의 삶] Henri Focillon 강영주 역 학고재 2001

# **ABSTRACT**

## **Study on reproducing objects through memory**

**Park, Sun MI  
Major in Media Print  
Dept. of Plastic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objects related to memory based on my works created the year of 2004.

As human beings, we all share feelings of loss, joy, sadness and fear in our everyday lives. Eventually, as time passes and situations change, these feelings help form our memories and certain objects conjure up the emotions felt at the time. My work started with the desire to materialize and reproduce images of these feelings.

By nature, objects are quiet and stationary. But each has their own shape and color, and they have the power to stir

memories of the past or of things once forgotten. However, most of those experiences are unclear—remaining imperfect or as fragmentary pieces of a whole. Everybody lives their life differently, but emotions such as happiness and sadness are experienced by all,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from and where they are going.

When I experience those feelings, they are no longer general, but personalized: they became mine. Likewise, reproducing objects that have special meaning to me is only possible in relation to me. In this sense, these efforts can be explained as an attempt to represent various feelings I have experienced through objects which exist in my everyday life.

I believe that tracing the life that I have lived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covering the features and feelings of the objects that stir my memory. I wanted to depict these objects as ever-changing, rather than tranquil and stationary. In other words, I intended to utilize objects to reproduce images that are both familiar and strange at the same time.

As for shape, concept and abstraction coexist on the screen to show the shapes of objects and my emotions. I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objects and background, and the methods of etching I used. I also analyze detailed ways of expression through my work and add pictures to the paper.